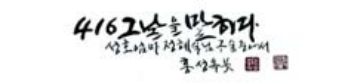




손종만작 '추억'미남구술중'



홍성욱작 '참과 거짓의 사이'미남구술중'



홍성욱작 '416 그날은 반가워'미남구술중'

손으로 쓰는 그날의 기억

4·16 세월호 참사 8주기 손글씨전 '그날을 쓰다'展...오는 24일까지 광주여성가족재단 여성전시관

“진실된 것을 기록을 하게 되면 역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지성 기억저장소 소장 구술 중)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55명 작가가 4·16 구술증언록을 읽고 붓으로 써서 펴낸 전시가 마련됐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오는 24일까지 재단 3층 광주여성전시관 허스토리(Herstory)에서 4·16 세월호 참사 8주기 손글씨전 '그날을 쓰다'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4·16기억저장소가 주최하고 세종손글씨연구소에서 주관하며 광주여성가족재단이 후원한다. 4월16일에서 그치지 않고 1년 내내 전시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55명의 손글씨 작가들이 세월호 유족 및 관계자 100명을 인터뷰해 엮은 '4·16 그날을 말한다' 구술자료 100권을 읽고 손수 붓으로 쓴 작품을 선보인다.

지난 4월1일 안산을 시작으로 대전과 세종, 옥천, 부산, 사천, 서울, 춘천에서 순회전을 가졌으며 이후 광주, 김해, 전주, 인천 등을 차례로 찾아가고 있다.

김성장 세종손글씨연구소 소장은 “예술적 도구 가운데 하나인 글씨로 4·16을 기억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글씨를 쓰며 이웃의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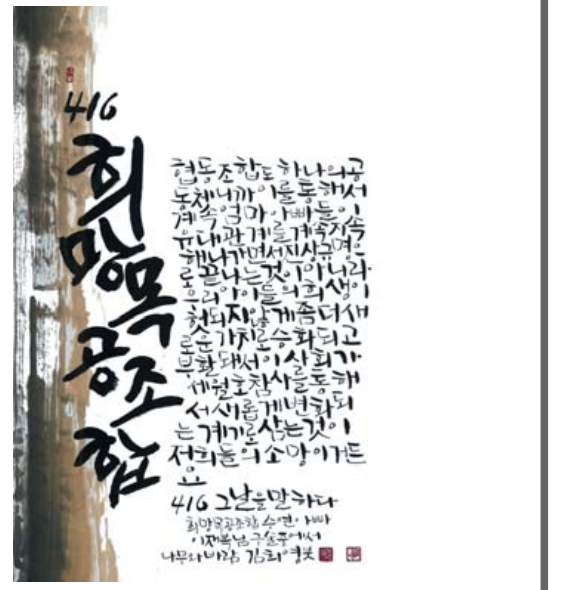


세월호 8주기 손글씨전 '그날을 쓰다' 전시 전경

(광주여성가족재단 제공)

픔을 기억하고, 붓끝을 모으며 마음을 추스렸다”며 “참여 작가들 모두 글씨를 쓰는 시간만큼은 유족의 마음에 다가가는 선명한 기억의 시간들이었을 것이다. 아픔과 통곡, 의문 그리고 앞으로 긴 동행의 내일을 위한 다짐의 시간이었으리라 믿으며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재단에서는 지난 10일 전시 오픈 행사로 '그날을 말한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지성 4·16 기억저장소 소장, 고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 '그날을 쓰다' 전시팀이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그날의 기억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사회구조로 더 이상의 무분별한 희생이 발생하지



김희연작 '수연아빠 이재복님 구술중'

않기를 기원했다.

김태선 광주여성가족재단 성평등문화팀 과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광주 시민들과 함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자 한다”며 “구조하지 못한 304명, 그리고 단원과 아이들에 대한 죽음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한 큰 참사이며,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시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관람이 어려운 관객들을 위해 전시를 영상으로 기록해 광주여성가족재단 유튜브 및 재단 홈페이지 온라인전시관에 공유하고 있다. 전시 관람은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빛고을예술단 '사랑의 콘서트' 하반기 공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문화소외계층과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명나는 문화예술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빛고을예술단(단장 나덕주)이 하반기 '사랑의 콘서트'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사랑의 콘서트'는 지난달 30일 남구 양림동 펠리니마 공연거리 야외광장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매달 시민들을 찾아간다.

이날 공연은 박광신 아나운서의 사회로 통기타 가수 김동규의 가요, 청년 퓨전재즈밴드 '더블루어즈'의 색소폰 연주 및 가요 무대가 펼쳐졌다. 아울러 전통국악기 명인 이준수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2호 악기장의 판소리, 지스타의 퓨전난타, 김성원의 트로트, 김상기 예술총감독의 희극·품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졌다.

또 임현숙 양림동 주민자치회장이 특별 출연해 통기타를 연주하며 감미로운



빛고을예술단 사랑의 콘서트 난타공연

가요를 들려줬다.

추후 공연 일정은 오는 27일, 9월24일, 11월26일, 12월31일 등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과 10월의 마지막 날인 10월31일이다. 모든 공연은 오후 6시부터 진행된다. 남구 양림동 펠리니마 공연거리 야외광장에서 열린다.

한편, 빛고을예술단은 2005년 8월 빛고을문화예술봉사단으로 창립된 이후 '사랑의 콘서트'라는 타이틀을 걸고 지역 사회취약계층과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꾸준히 공연을 펼쳐오고 있다.

/최명진기자

G.MAP '뉴미디어아트에서 NFT까지' 첫 강좌

오늘 민세희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초청 강연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은 미디어아트 아카데미 강좌 '뉴미디어아트에서 NFT까지'를 시작한다.

첫 강좌는 18일 오후 2시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2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되며, 민세희(사진)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이 강연자로 나선다.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미디어 콘텐츠 전문가인 민 원장은 '데이터의 시각화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미디어아트'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날 강좌에서 민 원장은 비주얼 소프트웨어를 개발, 정보를 실시간 처리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실시간 데이터 기반 창작인 '데이터의 시각화', 그리고 이의 구현 수단인 창작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술 머신러닝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아울러 디지털 시대의 '뉴 리얼리즘'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과 진단을 덧붙일 예정이다.

민 원장은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인터랙티브 미디어로 석사 수료 후 MIT 센서블 시티랩 도시정보 디자인 연구원, 한국인 최초 TED 펠로우를 거쳐 2019 서울라이트 총감독, 구글 아트&컬처 아티스트,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램프웍 대표로 활동했다. 최근에는 데이터 학습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반추하는 인공지능 환경을 시각화함으로써 기계가 인식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한편, 2022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미디어 아카데미 강좌는 오는 10월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90명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한다. 문의 062-613-6124-5. /최명진기자

청년문화공동체 '호랭이왕국' 시민 모집

오는 21일까지...24-28세 비소속 청년 대상

"저도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요, 갈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비소속 청년들의 느슨한 연결과 소속감 디자인을 위한 문화프로젝트가 펼쳐진다.

(사)청년문화허브(이사장 정두용)는 청년문화기획자 양성과정 '호랭이왕국'에서 기획한 '호랭이왕국' 시민을 모집한다.

문화프로젝트 '호랭이왕국'은 비소속 청년들이 모여 연결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초소형 국가 컨셉으로 마련됐다.

이곳에서 배수는 진로탐색기 청년, N잡러, 프리터·프리커족, 독립예술가 등 어딘가 고정된 곳에 소속되지 않은 비소속 청년을 이야기한다.

올해는 새로운 형태의 청년문화공간,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실험하고 내년에는 호랭이왕국 시민들과 함께 본격적인 가상의 나라 만들기 등 청년문화공동체



를 디자인한다.

모집 대상은 24-28세(95-99년생) 비소속 청년으로 오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비슷한 나이대를 모집해 서로 연결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디자인했으며, 매 모집 때마다 대상을 다르게 설정해 커뮤니티가 형성되도록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문화허브 블로그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10-8600-3540. /최명진기자

광주 대인동의 문화공원 김넛과

카페
식음료, 카페갤러리, 아트상품 전시 & 판매

아트호텔
전객실 회화전시 / 장기숙박할인(음식조리가능)

지하갤러리(55평), 2층(75평) 전시, 상설공연, 도서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음악콘서트(저녁 7시 30분)
최대 100여명 사용가능

김넛과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52-2번지
전화번호 : 062-229-3355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정보 커플유

초혼·재혼·전문직

커플매니저 프리랜서(알바) 모집!

모집부문	비고
프리랜서 (알바) 남·여○명	교통비 + 수당지급 오전 미팅후 퇴근시간 자유 상담 후 결정

• 위 치 : 상무 세정아울렛 부근 (치평동 1314-4)

062)381-6669